

서울시 거주 이주민의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황향화 · 김옥녀**

(이촌글로벌빌리지센터 · 숙명여자대학교)

1. 들어가기
2. 이론적 배경
 - 2.1. 이주민의 생활만족도
 - 2.2. 사회적 자본
 - 2.3. 사회적 자본과 생활만족도
3. 연구방법
 - 3.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 3.2. 측정변수 및 연구모형
 - 3.3. 분석방법
4. 연구 결과
 -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기술통계
 - 4.2. 이주민의 배경 변인에 따른 사회적 자본과 생활만족도의 차이
 - 4.3. 체류 자격에 따른 이주민의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5. 결론 및 논의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요약한 것임

** 제 1저자 : 황향화, 교신저자 : 김옥녀

Ⅰ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의 2019년 도시정책지표조사(서울서베이) 자료를 활용 서울시 거주 이주민의 사회적 자본유형을 분석하고,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거주 이주민의 사회적 자본 형성은 교량형 자본의 경우 연령, 국적, 체류자격, 한국어능력, 생활만족도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결속형 자본은 국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서울 거주 이주민의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국적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결혼이민자는 사회적 자본 중 교량형 자본, 개인변인 중 학력이 높을수록,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취업장의 경우, 사회적 자본 중 교량형 자본과 개인 변인 중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이주민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이론적,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이주민, 사회적 자본, 생활만족도, 상호문화주의

1. 들어가기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7년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그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의하면 외국인 이주민은 2009년 237만 명, 2019년 252만 명, 2021년 300만 명, 향후 10년 이내에는 500만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법무부 2020)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외국인 이주민의 증가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 농촌 및 공장의 생산인력 부족에 따른 이주 노동자의 증가, 국제결혼이민자의 증가 등이 주요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니즈(needs)의 바탕 위에 관련된 제도와 법안이 시행되면서 외국인 이주민의 유입이 확대되고, 관련 연구의 방향도 이주민 유입 및 증가 시기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1990년대 이주민 유입 초기에는 정책적 준비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와 다양한 차별에 대해 인권보호차원에서 시민활동을 중심으로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었다. 2000년대에는 국제이주의 연구 맥락에서 사회학자들의 노의가 시작되었으며, 정부는 2006년 결혼이민자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관련된 지원정책을 다문화사회의 맥락에서 수용하기 시작했다.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비롯한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이 마련되면서부터 다문화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반면 이러한 ‘열풍’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피로감과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등의 ‘역풍’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반(反)이민 혐오정서가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한건수, 2012). 구체적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시혜적 지원 정책에 따른 역차별 논란, 장기 불법체류자 증가에 따른 불안감 증대, 내국인 일자리 침해 논쟁 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동안 이주민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정부는 이주민과 정주민의 상호이해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가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는데는 관심이 부족했다. 그 결과, 이주민과 정주민 간의 문화갈등이 증폭될 뿐만 아니라, 이주민에 대한 정주민들의 편견과 차별, 불안정하고 열악한 노동환경과 경제적 어려움,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해 이주민들은 한국사회에서 생활하고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임동진·김옥녀 2021).

이주민에게 정주국에서의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행복감이거나 심리적 안정을 넘어서 세대를 넘어 안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 가족과 사회관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의 삶의 만족도 연구를 통해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해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반면, 이들의 낮은 삶의 만족도는 자녀에 대한 강압적인 양육태도로 나타난다는 사실(송신영·박석연 2008)을 볼 때, 다문화가정 이주자들의 낮은 삶의 만족도는 자칫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대물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에서의 삶의 불만족 악순환이 세대를 거쳐 반복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통합 및 문화적응이라는 다문화사회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이주민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이주민의 장기체류 증가와 체류자격 및 국적의 다양성 확대가 엿보인다. 국적 및 체류자격의 관점에서 보면 기존 개발도상국 출신자들이 대부분이었던 상황에서 선진국 출신자도 많아졌고, 국내 유입의 목적도 단순 노임의 제공이 아닌 유학생, 연예인 지망생, 글로벌 우수인재들이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가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다문화정책도 초기 동화주의 정책에서 상호문화주의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상호문화주의란, 이주민들을 한국 사회에 일방적으로 적응시키기 위해 한국 문화에 동화시키는 일방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상이한 문화 간 접촉 또는 만남을 장려하고, 상호 주관성에 근거한 상호 이해와 대화의 가능성을 탐구함으로써 공통의 문화 또는 열린 공적 장의 창출과 함께 새로운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테드 캔틀 2020).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과 문화적응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즉, 이주민에게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상호작용은 그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고 보고 있다(김동현 · 전희정 2019). 이들이 형성한 사회적 자본이 점차 확대되고 주류와의 접촉면을 넓히는 연결망으로서 꾸준히 기능한다면 이주민의 성공적 정착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적 자본은 이주민이 이주사회에서 정착하는데 필요한 생활만족도와 깊은 상관을 지닌다(김동현 · 전희정 2019; Amit & Riss 2007). 더불어 같은 외국인 이주민라고 해도 체류자격에 따라 사회적 자본 유형이 다르고(Jun & Ha 2015; 이정환 2016), 사회적 자본 유형에 따라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나며(김동현 · 전희정 2019), 국적에 따라 사회적 자본 형성 유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김세현 2018; 이은정 · 이승용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이주민의 성별, 국적, 소득수준, 한국어 능력, 체류 기간 등 개인변인에 따라 사회적 자본 형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며, 개인 변인을 포함한 사회적 자본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검증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김동현 · 전희정 2019). 그러므로 이주민이 이주사회에 조기정착을 위해 개인 변인과 체

류자격에 따른 사회적 자본 형성과 생활만족도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세분화된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의 목적은 이주민의 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유형을 분석하고, 이들 요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이주 특성을 지닌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 할 수 있는 이민 정책 형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민의 배경 변인에 따른 사회적 자본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이주민의 배경 변인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체류 자격에 따른 이주민의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2.1. 이주민의 생활만족도

정순돌(2003)은 생활만족도는 흔히 삶의 만족도, 삶의 질, 심리적 안녕상태, 행복감 등 학자들의 연구 목적에 따라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정의되고, 사용된다고 한다. Diener(1984)는 생활만족도의 개념을 ‘전체적인 삶에 대한 통합적인 판단에 따라 주관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최성재(1986)은 생활만족도는 ‘행복감’이라는 개념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며, 정적인 측면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삶에서의 가치 인식에 대한 평가이며, 동적인 측면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실제적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그리고 미래의 삶과 활동의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생활만족도는 대상자의 주관적인 시각에 따라 생활영역 전반을 다루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의 정의를 ‘주관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정도’로 보는 Diener의 정의를 받아들여 정의하고자 한다. 즉, 생활만족도는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 자신의 인생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인생의 목표나 욕구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로 정의하고자 한다.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는 소득 수준에 따른 만족도 분석과 같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점차 주관적 행복감(=만족도)으로 연구의 중심이 이동하였다. 이후 주관적 행복감은 개인의 냉철한 인지적 측면에 대한 분석보다는 감정적으로 행복한 상태라는 견해가 우세하게 되었다(Diener 2000).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네가지 요인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연령(이규용 · 박성재 2010), 성별(나금실 2011; 이규용 · 박성재 2010), 출신국가(김세현 2018), 거주기간(Safi 2010; 김한성 · 이유신 2013), 체류자격(김동현 · 전희정 2019)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둘째, 개인적 역량으로 학력(Safi 2010; 이규용 · 박성재 2010) 과 한국어 능력력(Amit 2010; 김대명 2016; 이규용 · 박성재 2010; 김경미 2012). 셋째, 경제적 요인으로 소득수준과 경제적 지위(Safi 2010; Amit 2010), 넷째, 정부지원 정책요인으로 정부지원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도(임동진 · 김옥녀 2022)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신 국적이거나 체류자격 요인, 사회적 자본(관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김동현 · 전희정 2019). 출신국적은 출신국에서 성장한 이후에 이주하는 대부분의 외국인 이주민의 가치관, 사회적 관념, 행동 습관, 생활태도가 출신국가의 문화환경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고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요소가 될 것이다. 김철수(2018)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출신 국가별 차이가 여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국적에 따라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로서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등의 변인이 국적별로 차이가 존재하였고, 그것이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체류자격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진행되었지만,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연구라고 해도 단독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았다. 서로 다른 체류목적에 지닌 집단을

비교분석 한 것은 많지 않았으며, 최근에 이르러서야 체류 목적에 따른 비교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김동현, 전희정(2019)은 방문취업자와 결혼 이민자 간의 비교를 통해 이들이 형성하는 사회적 자본 유형과 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체류자격별로 효과적인 사회적 자본 유형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검증하고 있다. 이렇듯 체류목적과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생활만족도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다를 수 밖에 없다. 이에 체류자격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김경미(2012)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와 정서적 연계(사회적 모임의 참여도)를 조사한 결과, 정서적 연계가 강한 베트남 출신자가 중국 출신자보다 높았고, 일본 출신자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신국가 그 자체가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개인의 자아존중감이나 사회적 관계 형성 등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외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특성의 변수로는 개인적 요인으로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 한국어능력, 한국거주기간은 물론 특히 국적과 체류자격, 사회적 자본유형을 선정하여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9 서울서베이에서 실시한 6가지 생활만족도 카테고리(구성요인으로 정의할 것이다. 즉, 주거환경(상하수도, 전기, 통신, 주택, 교통, 녹지 등), 경제환경(구직, 소득, 근로시간 등), 복지환경(의료, 사회보장 등), 사회환경(외국인에 대한 배려, 포용성 등), 교육환경(교육비, 교육기회 등), 도시안전(범죄, 사고, 재해 등)에 대한 주관적 심리적 만족상태를 생활만족도의 구성요인으로 삼을 것이다.

2.2. 사회적 자본

Putnam(1993; 2000)은 사회적 자본을 ‘협력적 행동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사회적 자본을 이루는 구성요소로서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 사회적 규범(Social Norms), 신뢰(Trust)를 강조하였다. 학계에서도 ‘사회적 자본’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이주민의 생활세계를 보다 현실적이고 세분화하여 파악하려는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와 이주민들이 지닌 사회적 자본 수준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이주민들은 가족, 친구에서부터 종교단체, 국가가 운영하는 지원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간적, 시간적 배경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상호 간 신뢰를 구축하고 정서적 지지를 주고 받는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며 이것이 외국인 이주민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주민들은 초기에는 한국인 거주지역과 분리된 지역에서 모국인들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려고 한다(이창호 2013). 주로 한국 주류 사회와 격리된 이민자 집단 거주지 내에서 모국인들과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교환, 상호부조 등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여 한국 사회 내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김영란 2008; 이금희 외 2016).

Putnam(1993; 2000)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네트워크의 조밀성에 따라 규범에 대한 순응성과 상호책임에 기반한 신뢰가 형성되기 쉽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 결속형과 교량형으로 분류하였다. Jun & Ha(2015)는 사회적 자본 중 사회적 네트워크를 결속형, 교량형, 연계형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하여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민의 집단 간 사회적 자본 수준의 차이와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연계형 네트워크는 넓게 보면 교량형 네트워크 중 하나이며 외국인 이주민의 경우 수직적 관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계형 네트워크를 제외하고 결속형 네트워크와 교량형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utnam(1993; 2000)과 김동현·전희정(2019)이 정의한 결속형 네트워크와 교량형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주민들의 인구사회학적 요소와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하고, 사회적 자본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2.3. 사회적 자본과 생활만족도

사회적 자본이 외국인주민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지난 10년간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장지혜(2010)는 한국에 살고 있는 여성 결혼 이주민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변수로써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나금실(2011)은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연결망이 이주노동자의 취업만족에 매우 높은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지원은 이주노동자의 취업만족에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성별과 국적에 따라 이주노동자에 대한 양질의 사회적 연결망 형성과 사회적 지원,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장현주(2011)는 외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도는 이주국에 대한 사회적 현신과 기여도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자본 중에서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축이 외국인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실생활상의 문제해결, 자아존중감(self-esteem)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여성결혼이주민의 사회연결망과 한국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김경미 2012)에서는 가족연계 변인 중에서는 모국 가족 접촉 빈도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동거가족 크기는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이소영(2015)은 여성결혼이주민의 경우 사회적 자본(신뢰, 네트워크, 참여, 규범)이 공적 제도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며, 이영균과 이민자(2016)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지닌 사회적 자본에 대한 신뢰, 가족 및 사회적 지지망, 참여, 규범 등이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검증했다.

김세현(2018)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사회적 자본 설명 요인을 탐색하고 이주민의 출신 국적에 따라 사회적 자본 구조가 느슨함-중간-고밀도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김동현과 전희경(2019)은 방문취업자는 모국인과 모국인 사회와의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혼이주여성에게는 교량형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하였다. 즉, 한국인과 한국 사회와의 교량형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이처럼 이주민들의 성공적인 한국생활 정착과 생활만족도에 사회적 자본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고 있다. 반면 사회적 자본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회적 자본의 특성이 외국인 이주민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으로만 진행되어 왔다. 이정환(2016)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분석했지만 외국인노동자의 참여 모임 단일요인만을 고려하는 수준에 불과하였고, 김동현과 전희경(2019)은 방문취업자와 결혼이민자를 구분하여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했으나, 이주민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사회적 자원에 대한 측정은 규명하지 못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사회문화적 특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방문취업자와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 형성 정도를 살펴보고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거주 외국인 주민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2019년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정보」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자료는 서울시가 서울의 전반적인 사회상을 파악하고, 서울시정 운영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가구(2만가구), 시민(5천명), 외국인(2,5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 생활상, 가치관과 주거여건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전체 대상 중 2019년 9월 1일 현재 국내 91일 이상 체류 중인 만 20세 이상의 서울시 거주 외국인 주민이다. 외국인의 표본 추출은 서울시에서 제공한 ‘출입국 관리사무소 외국인등록 DB’를 바탕으로 성별, 연령, 국적, 체류자격, 체류형태 등의 층화계통 추출

을 통해 표집되었다.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는 2019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30일간 방문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결과 자료이며, 외국인 주민의 응답자는 총 2,500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주민 총 2,500명 중 연구 목적에 적합한 방문취업자와 결혼이주민에 해당하는 외국인 주민을 표본추출하였으며, 최종 647명의 외국인 주민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3.2. 측정변수 및 연구모형

3.2.1. 측정 변수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사용된 측정변수는 생활만족도 요인, 사회적 자본 요인, 인구학적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종속변수로 사용된 변수는 개인의 주관적인 생활만족도이다. 2019년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에서 생활(삶)만족도에 대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전반적인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 정도’이다. 생활만족도는 총 6개 영역 즉, 주거·경제·복지·사회·교육환경과 도시안전 환경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도구는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1점(매우 불만족)에서 5점(매우 만족)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값은 .82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독립변수로 사용된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단체 또는 모임으로 정의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참여자 및 모임 특성에 따라 결속형 자본과 교량형 자본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자본 유형에 대한 설문은 2019년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에서 ‘귀하께서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나 모임은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라는 질문 중심으로 조사자의 응답 내용에 따라 구분하였다. 응답 중에서 모국인을 중심으로 한 ‘모국인 친구모임, 모국인 사회단체’는 ‘결속형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하였다. ‘교량형 사회적 자본’은 모국인 이외의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한국인, 타국 외국인들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맺을 수 있는 ‘여성결혼이주민 모임, 글로벌빌리지센터 모

입, 한국다문화센터 모임,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종교 모임, 유학생 네트워크, 취미 동호회, 학습 관련 모임'으로 분류하였다.

통제변수로 사용된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연령(이규용 · 박성재 2010), 성별(나금실 2011; 이규용 · 박성재 2010), 학력(Safi 2010; 이규용 · 박성재 2010), 소득 수준(Safi 2010; Amit 2010), 한국어 능력(Amit 2010; 김대명 2016; 이규용 · 박성재 2010; 김경미 2012), 체류기간(Safi 2010; 김한성 · 이유신 2013), 체류자격(김동현 · 전희정 2019), 출신국가(김세현 2018)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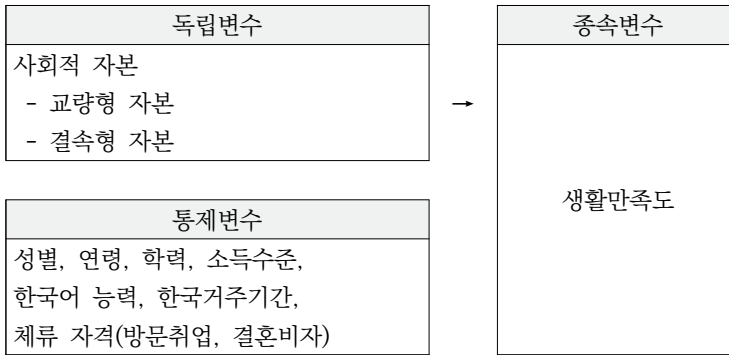
주요변수에 대한 설명과 측정방법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주요변수의 구성

구분	변수	세부측정 내용
종속 변수	생활만족도	· 1~5점 (매우 불만족~매우 만족) · 주거환경(상하수도, 전기, 통신, 주택, 교통, 녹지 등) · 경제환경(구직, 소득, 근로시간 등) · 복지환경(의료, 사회보장 등) · 사회환경(외국인에 대한 배려, 포용성 등) · 교육환경(교육비, 교육기회 등) · 도시안전(범죄, 사고, 재해 등)
독립 변수	연속형	· 모국인 친구 모임 · 모국인 사회단체 · 참여=1 미참여=0
	사회적 자본	· 여성결혼이주민 모임 · 종교 모임 · 유학생 네트워크 · 취미관련 동호회 · 학습관련 모임 ·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 한국다문화센터 모임 · 참여=1 미참여=0
	교량형	
	연령	· 출생년도 응답으로 만 나이 산출, 연속형 변수
	성별	· 남성 = 1, 여성 = 0
통제 변수	학력	· 중학교 졸업 이하 = 1 · 고등학교 재학~졸업 이하 = 2 · 전문대 · 대학졸업 이하 = 3 · 대학원 재학 이상 = 4
	소득 수준	· 200만원 미만 = 1 ·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2 · 400만원 이상 = 3

한국어 능력	· 1~5점 (매우 서툰~매우 잘 함) ·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점수 합
거주 기간	· 연속형 변수(단위:한국 체류 개월 수)
체류 자격	· 방문취업(H2)=1, 결혼이민(F6)=0
출신국가	· 한국계중국인, 중국, 일본, 타이완, 베트남, 아시아 기타, 영미유럽권

3.2.2.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서울시 거주 이주민의 사회적 자본 형태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서울시 거주 이주민의 생활만족도로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서울시 거주 이주민의 사회적 자본(교량형 자본, 결속형 자본)으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 한국어능력, 한국 거주기간, 체류자격으로 구성하였다.

3.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주요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배경변인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기술통계

이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이에 따른 생활만족도도의 차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2>와 같다. 성별은 여성(52.9%)이 남성(47.1%)보다 많았으며, 연령대는 30대(47.8%), 40대(31.2%), 50대(11.6%), 20대(7.4%), 60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647)

	구분	N	%	구분	N	%	
성별	남	305	47.1	20대	48	7.4	
	여	342	52.9	30대	309	47.8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74	11.4	연령	40대	202	31.2
	고등학교 졸업 이하	383	59.2		50대	75	11.6
	대학교(2년제포함)이하	183	28.3		60대 이상	13	2.0
	대학원 이상	7	1.1		200만원 미만	315	48.7
국적	한국계 중국인	481	74.3	소득 수준	200만원 이상	238	36.8
	중국	49	7.6		400만원 미만	19	2.9
	일본	17	2.6		400만원 이상	75	11.6
	타이완	3	0.5	체류	방문취업	429	66.3
	베트남	33	5.1		자격	결혼 이민자	218
	아시아 기타	37	5.7	한국어 능력	평균미만	346	53.5
	영미권, 유럽권	27	4.2		평균이상	301	46.5

대 이상(2.0%)순으로 나타났다. 국적은 한국계 중국인(74.3%)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중국(7.6%), 아시아 기타(5.7%), 베트남(5.1%), 영미권 및 유럽권(4.2%), 일본(2.6%), 타이완(0.5%)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59.2%)가 과반수 이상이였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교(2년제 포함) 졸업 이하(28.3%), 중학교 졸업 이하(11.4%), 대학원 재학 이상(1.1%)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수준은 200만원 미만(48.7%),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36.8%), 400만원 이상명(2.9%) 순으로 나타났다. 체류자격은 방문취업(66.3%)이 결혼 이민자(33.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능력은, 한국어 실력에 대한 자기평가 질문의 합계와 평균을 산출하여 평균을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평균미만(53.5%)이 평균이상(46.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생활만족도의 기술통계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왜도	첨도
생활만족도	647	22.66	2.63	14.00	29.00	-0.588	0.128
평균이하	288	20.31	1.88	14.00	22.00	-1.107	0.530
평균이상	359	24.54	1.29	23.00	29.00	0.406	-0.585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생활만족도의 기술통계는 〈표-3〉과 같다. 생활만족도의 평균은 22.66점으로 나타났다.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미만과 평균이상으로 구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 평균미만 집단은 평균 20.31점, 평균이상 집단의 24.54점이다. 왜도와 첨도의 경우, 왜도는 절대값이 3보다 크고, 첨도는 절대값이 10보다 큰 경우 자료의 정규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Kline 2015). 본 연구의 생활만족도 변수는 왜도와 첨도 모두 기준값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자료 정규성의 문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2. 이주민의 배경 변인에 따른 사회적 자본과 생활만족도의 차이

4.2.1. 이주민의 배경 변인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

이주민의 배경 변인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연령, 성별, 국적, 학력, 소득수준, 체류자격, 한국어능력, 생활만족도에 따라 사회적 자본을 비교한 교차표를 산출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교량형 자본과 결속형 자본으로 구분하였으며, 교량형 및 결속형 모임의 참여 여부로 설정하였다.

먼저 교량형 자본을 연구 대상자의 배경 변인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4>와 같다. 연령, 국적, 체류자격, 한국어 능력, 생활만족도에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주로 30대와 40대 중심으로 교량형 모임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X^2=11.728$, $p<.05$). 국적에 따른 교량형 모임의 참여 비율은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아시아 기타국가와 영미권 및 유럽권 국가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일본, 타이완은 미참여 비율이 높고, 중국은 참여와 비참여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X^2=19.847$, $p<.05$). 결혼이민자 집단보다 방문취업 집단에서 교량형 모임의 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X^2=7.171$, $p<.01$). 한국어 능력 점수를 평균이상과 이하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평균 이상집단에서 교량형 모임에 참여하는 비율이 미참여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X^2=50.522$, $p<.001$). 생활만족도의 경우 평균이상과 미만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평균 이상집단에서 교량형 모임에 참여하는 비율이 미참여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X^2=23.626$, $p<.001$).

다음으로 이주민의 배경 변인에 따른 결속형 자본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5>와 같다. 유일하게 국적에 따른 결속형 모임의 참여 여부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미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국가간 미참여 하는 비율은 조금씩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이주민의 배경변인에 따른 교량형 사회적 자본의 차이

(N=647)

	구분	교량형 모임 참여		교량형 모임 미참여		X ²
		N	%	N	%	
성별	남	180	59.0%	125	41.0%	.484
	여	211	61.7%	131	38.3%	
연령	20대	22	45.8%	26	54.2%	11.728*
	30대	193	62.5%	116	37.5%	
	40대	131	64.9%	71	35.1%	
	50대	36	48.0%	39	52.0%	
	60대 이상	9	69.2%	4	30.8%	
국적	한국계 중국인	289	60.1%	192	39.9%	19.847*
	중국	24	49.0%	25	51.0%	
	일본	6	35.3%	11	64.7%	
	타이완	1	33.3%	2	66.7%	
	베트남	27	81.8%	6	18.2%	
	아시아 기타	27	73.0%	10	27.0%	
	영미권, 유럽권	17	63.0%	10	37.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	64.9%	26	35.1%	.721
	고등학교 졸업 이하	230	60.1%	153	39.9%	
	전문·4년제 대학 이하	109	59.6%	74	40.4%	
	대학원 재학 이상	4	57.1%	3	42.9%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202	64.1%	113	35.9%	2.817
	200만원 이상	136	57.1%	102	42.9%	
	400만원 미만	12	63.2%	7	36.8%	
	400만원 이상	12	63.2%	7	36.8%	
체류 자격	방문취업	275	64.1%	154	35.9%	7.171**
	결혼 이민자	116	53.2%	102	46.8%	
한국어 능력	평균미만	165	47.7%	181	52.3%	50.522***
	평균이상	226	75.1%	75	24.9%	
생활 만족도	평균미만	144	50.0%	144	50.0%	23.626***
	평균이상	247	68.8%	112	31.2%	

* p<.05, ** p<.01, *** p<.001

〈표 5〉 이주민의 배경 변인에 따른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차이 (N=647)

	구분	결속형 모임 참여		결속형 모임 미참여		X ²
		N	%	N	%	
성별	남	23	7.5%	282	92.5%	.489
	여	31	9.1%	311	90.9%	
연령	20대	5	10.4%	43	89.6%	1.598
	30대	26	8.4%	283	91.6%	
	40대	16	7.9%	186	92.1%	
	50대	7	9.3%	68	90.7%	
	60대 이상	0	0.0%	13	100.0%	
국적	한국계 중국인	33	6.9%	448	93.1%	21.005*
	중국	2	4.1%	47	95.9%	
	일본	2	11.8%	15	88.2%	
	타이완	0	0.0%	3	100.0%	
	베트남	4	12.1%	29	87.9%	
	아시아 기타	8	21.6%	29	78.4%	
	영미권, 유럽권	5	18.5%	22	81.5%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3	4.1%	71	95.9%	2.774
	고등학교 졸업 이하	34	8.9%	349	91.1%	
	전문·4년제 대학 이하	17	9.3%	166	90.7%	
	대학원 재학 이상	0	0.0%	7	100.0%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23	7.3%	292	92.7%	4.507
	200만원 이상	21	8.8%	217	91.2%	
	400만원 미만	4	21.1%	15	78.9%	
	400만원 이상	4	21.1%	15	78.9%	
체류 자격	방문취업	31	7.2%	398	92.8%	2.088
	결혼 이민자	23	10.6%	195	89.4%	
한국어 능력	평균미만	28	8.1%	318	91.9%	.063
	평균이상	26	8.6%	275	91.4%	
생활 만족도	평균미만	23	8.0%	265	92.0%	.088
	평균이상	31	8.6%	328	91.4%	

* p<.05, ** p<.01, *** p<.001

4.2.2. 이주민의 배경 변인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

이주민의 배경 변인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6>과 같다.

<표 6> 이주민의 배경 변인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

(N=647)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t / F	Scheffe
성별	남	305	22.66	2.71	-0.004	-
	여	342	22.65	2.56		
체류 자격	방문취업 결혼 이민자	429 218	22.95 22.08	2.56 2.66	-3.997***	-
한국어 능력	평균미만	346	22.24	2.77	-4.450***	-
	평균이상	301	23.14	2.37		
연령	20대	48	22.77	3.05	0.745	-
	30대	309	22.52	2.59		
	40대	202	22.82	2.52		
	50대	75	22.56	2.79		
	60대 이상	13	23.46	2.79		
국적	한국계 중국인(a)	481	22.79	2.59	3.582**	a > b
	중국	49	22.22	2.37		
	일본(b)	17	20.41	3.71		
	타이완	3	21.67	0.58		
	베트남	33	22.21	2.68		
	아시아 기타	37	22.24	2.60		
학력	영미권, 유럽권	27	23.63	2.27	0.433	-
	중학교 졸업 이하	74	22.92	2.37		
	고등학교 졸업 이하	383	22.61	2.65		
	전문·4년제 대학 이하	183	22.63	2.72		
소득 수준	대학원 재학 이상	7	23.29	1.80	5.755**	a > b
	200만원 미만(a)	315	23.04	2.56		
	200만원 이상	238	22.39	2.51		
	400만원 미만(b)	19	23.68	2.06		
	400만원 이상(c)					

* $p < .05$, ** $p < .01$, *** $p < .001$

이주민의 체류자격, 한국어 능력, 국적, 소득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체류자격에서는 방문취업을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방문취업 이주민들이 결혼이주민보다 생활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t=-3.997, p<.001$). 한국어 능력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는 평균 이상 집단이 평균 미만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t=-4.450, p<.001$). 국적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 분석 결과, 한국계 중국인이 중국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582, p<.01$). 소득 수준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200만원 미만 집단이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5.755, p<.01$).

4.3. 체류 자격에 따른 이주민의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주민의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체류자격에 따라 세분화하여 분석을 진행했으며, 연구결과는 <표-7>과 같다.

첫 번째, 결혼이민자 집단의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연구대상자 중 결혼이민자 집단의 사회적 자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5.007,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23.7%(수정된 R제곱은 19.2%)로 나타났다($R^2=.237, adjR^2=.192$). Durbin-Watson의 통계량은 1.654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VIF)는 모두 1에 가까운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 문제도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자본 중 교량형 모임 참여($\beta=.180, p<.05$)는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수 중 한국어 능력($\beta=.189, p<.05$), 한국 거주기간($\beta=-.226, p<.05$)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자본 중에서도 교량형 모임에 해당하는 모임에 참여하는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제변수를 통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

〈표 7〉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전체		결혼이민자		방문취업자			
	β	t	β	t	β	t		
(상수)		15.172**		10.468***		15.620***		
독립 변수	사회적자본	결속형	0.051	1.222	0.023	0.300	0.042	0.851
	(0 미참여)	교량형	0.151	3.455**	0.180	2.278*	0.141	2.691**
통계 변수	성별(0: 여자)		-0.011	-0.269	0.138	1.789	-0.066	-1.400
	연령		0.076	1.731	-0.095	-0.957	0.092	1.866
	학력		0.117	2.235*	0.115	1.367	0.031	0.609
	소득수준		0.017	0.352	0.189	2.254	0.179	3.442
	체류자격 (0: 결혼이민자)		0.043	0.788				
	한국어능력		0.188	4.145**	-0.226	-2.160*	-0.018	-0.367**
	한국거주기간		-0.149	-2.998**	0.157	1.831*	-0.058	-1.163
		F=7.086,	F5.007,	F=4.759,				
		R2=.102,	R2=.237,	R2=.083,				
		adjR2=.088,	adjR2=.192,	adjR2=.066,				
		VIF=1.019-1.850	VIF=1.049-1.951	VIF=1.017-1.252				

* p<.05, ** p<.01, *** p<.001

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한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한국에 거주하는 기간은 짧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계수의 크기를 비교하면, 한국 거주기간, 한국어 능력, 사회적 자본 중 교량형 모임 참여 순으로 생활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두 번째, 방문취업을 위해 거주하는 집단의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체류자격이 방문취업인 경우만 구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F=4.759,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8.3%(수정된 R제곱은 6.6%)로 나타났다(R2=.082, adjR2=.066). Durbin-Watson의 통계량은 1.633으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VIF)는 모두 1에 가까운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 문제도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자본 중 교량형 모임 참여($\beta=.141$, $p<.01$)는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수로 투입한 변수들 중 한국어 능력($\beta=.192$, $p<.01$)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계수의 크기를 비교하면, 한국어 능력, 교량형 사회적 자본 순으로 생활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2019년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 거주 외국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배경변인에 따른 사회적 자본 유형을 살펴보고,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민의 배경변인에 따른 사회적 자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먼저 교량형 자본의 차이를 살펴보면, 이주민의 연령의 경우, 타 연령대보다 30대와 40대 집단이, 국적에서는 일본과 타이완보다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아시아 기타국가와 영미권 및 유럽권 국가가, 체류자격은 결혼이주민보다 방문취업 이주민이, 한국어 능력과 생활만족도는 평균 미만보다 평균 이상 집단에서 교량형 모임 참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결속형 자본의 차이를 살펴보면 유일하게 국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주민의 배경 변인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국적과 소득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한국계 중국인이 중국인보다 높게 타났으며, 200만원 미만 집단이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이주민의 체류자격에 따라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결혼이주민의 경우 사회적 자본 중 교량형 자본이

개인변인 중 한국어 구사능력이 높을수록, 한국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방문취업자의 경우 사회적 자본 중 교량형 자본이, 개인변인 중 한국어 구사능력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된 선행연구와의 비교 및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이주민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결혼이민자와 방문취업자 모두 교량적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결속형 사회적 자본과 관련해 볼 때, 결혼이민자이든 방문취업자이든 모두 모국인과의 결속형 모임에 대한 참여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김동현과 전희정(2019)은 결속형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생활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영향관계의 성립이 확인되지 않았다. 둘째, 국적 요인은 교량형과 결속형 사회적 자본과 유의한 관계를 지니지만 국적에 따라 참여도와 개방성이 미미하게나마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김세현(2018)의 연구에서 보듯이 국적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구조가 다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향후 국적에 대한 표본을 균형적으로 많이 수집할 수 있다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국어능력은 사회적 자본 형성과 생활만족도 향상에 있어서 모두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김한성·이유신 2013; 김동현·전희정 2019). 한편 권오정·김석호(2016)의 연구에서는 한국어능력이 오직 한국계 중국인에게만 유의한 결과로 나타나, 향후 연구에서는 국적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내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방문취업자의 경우, 주어진 비자의 체류기한 내에서 돈을 벌고 귀국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최근의 추세는 장기체류화가 발생하고 있고, 더구나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한국 내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을 감안하면 시간이 갈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지 않다는 것은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김경미(2012)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의 거주기간은 생활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영분과 이유경(2009)의 연구에서는 결혼초기

에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며 10년 후에는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결혼기간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다른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김화자 · 윤종희 1991). 이에 비해, 방문취업자는 경제활동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거주기간이 짧으면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만약 한국에서 노동경험 및 생활경험이 만족스러웠다면 최대한 국내에 거주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최근 최대 4년 9개월까지 체류연장이 가능하고 장기체류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 방문취업자에 대한 세분화된 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 근거하여 취업방문자 및 결혼이주민들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실제적인 지원정책들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이주민의 교량형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내국인 외국인 모두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결혼이주민들을 일방적으로 한국 사회에 동화시키려는 방향보다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등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김동현 · 전희정, 2019; 박미정 · 엄명용 2009). 또한, 내국인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공동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지역 내 외국인 이주민들의 특성을 잘 아는 지자체와 지역사회단체가 주도하는 상호문화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결혼이주민들과 한국인들이 다함께 동참할 수 있는 교량형 자본을 자연스럽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김동현 · 전희정 2019; 이성순 2013). 둘째, 외국인 이주민들의 체류주기에 따른 지원방안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내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상황을 고려하면 결혼이주민자에게는 생애주기에 기반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김동현 · 전희정 2019). 셋째, 결혼이민자와 방문취업자 모두 한국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어 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각 기관별로 운영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등급별 세분화와 수강생에 대한 프로그램 다양화 등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연구의 한계점과 그에 따른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본의 개념 속에는 사회적 네트워크 이외에 신뢰와 사회적 규범이 있지만 2019 서울서베이의 자료를 활용하는 조건상 이러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경우 결속형, 교량형, 연계형이 존재하지만 수직적 상하관계를 연구하는 연계형은 외국인 이주민에게는 적합한 개념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2가지만 측정하였다. 향후 사회적 자본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나 방법이 있다면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영향요인을 고려해 볼 수 있고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터뷰 등의 질적연구를 통해 심화된 문맥도출과 시사점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배경변인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 관한 분석에서 국적은 교량형과 결속형 사회적 자본에 모두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지만 이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은 어려웠다. 향후, 출신 국적별로 사회적 자본 유형의 형태와 그것이 생활만족도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외국인 이주민의 체류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민세대 간 및 가족 구성원 간의 의식 차이에 대한 탐구도 필요할 것이다. 방문취업자의 경우에는 직업별/지역별/소득구간별 특징을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오정 · 김석호(2016). 영주권자와 귀화자의 생활 만족감: 계층 이동감과 상대적 소속감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6(3), 449쪽-484쪽.
- 김경미(2012). 여성결혼이주민의 사회연결망과 한국생활 만족도, <한국인구학>, 35(2), 185쪽-208쪽.
- 김대명(2016).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능력,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희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4(4), 89쪽 - 100쪽.
- 김동현 · 전희정(2019). 서울시 거주 외국인의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연구>, 28(2), 123쪽-159쪽.
- 김세현(2018). 신뢰형성에 있어 사회참여와 제도의 역할, <서울도시연구>, 19(4), 131쪽-147쪽.
- 김영란(2008).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관한 연구, <담론201>, 11 (2), 103쪽-138쪽.
- 김영란(2013). 다문화사회 한국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주의 정책, <한국사회>, 14(1), 3쪽-30쪽.
- 김철수(2018). 결혼이주 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인문연구>, 84(0), 267쪽-302쪽.
- 김한성 · 이유신(2013).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 지역사회 특성과 차별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47(2), 177쪽-209쪽.
- 김화자 · 윤종희(1991). 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사례집>, 6(1), 23쪽-32쪽.
- 나금실(2011).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자본과 취업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7집, 435쪽~454쪽.
- 박미정 · 엄명용(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2, 1쪽-26쪽.
-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2019).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19년 12월)」.
- 법무부(2018).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
- 서울연구원(2019). 2019년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서울서베이).
- 송신영, 박성연(2008).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구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6(5), 19쪽-33쪽.
- 이금희, 유양, & 정동섭(2016). 조선족 근로자의 사회적 자본이 문화적응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관리연구>, 23(1), 1쪽-18쪽.

- 이규용·박성재(2010). 외국인 인력의 공급특성이 직장 및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사회연구>, 3(2), 103쪽-121쪽.
- 이성순(2013).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4(3), 161-185
- 이소영(2015).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이 공적제도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와 평화>, 12(2), 23쪽-50쪽.
- 이영균·이민자(2016).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생활만족도 관계, <한국공공관리학보>, 30(3), 53쪽-76쪽.
- 이영분·이유경(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분화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6(0), 63쪽-86쪽.
- 이은정, 이승용(2015). 이주민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 대구 경북 이주민과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93쪽-134쪽.
- 이정환(2016).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생활 만족도, <한국인구학>, 39(2), 25쪽-48쪽.
- 이창호(2013). 이주민 일상 속의 사회적 연결망 연구: 필리핀, 베트남 및 중국조선족 이주민의 사례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7(2), 109쪽-136쪽.
- 임동진·김옥녀(2021). 지방 중소도시 이민자들의 정착지원서비스 이용과 생활서비스 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韓國地方自治學會報> 33(1), 213쪽-246쪽.
- 장지혜(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과 생활만족도, <한국이민학>, 1(2), 67쪽-95쪽.
- 장현주(2011). 다문화가정 이주자의 합리적 선택과 현실, <한국공공관리학보>, 25(4), 189쪽-213쪽.
- 정순돌(2003). 저소득 노인의 가족동거여부와 삶의 만족도, <한국가족복지학>, 11, 59쪽-79쪽.
- 최성재(1986). 노인의 생활만족도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 학교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 테드 캔들(2020). 상호문화주의: 결속과 다양성의 새로운 시대.
- 한건수(2012).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 혐오증과 실패론: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와 인간> 1(1), 113쪽-143쪽.
- Amit, K.(2010).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among immigrants from Western countries and from the FSU in Israel. *Social Indicators Research*, 96, 515-534.
- Amit, K., & Riss, I.(2007). The Role of Social Networks in the Immigration Decision-making Process: The case of North American immigration to Israel. *Immigrants and Minorities*, 25(3): 290-313.
- Coleman, J. 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120.
- Diener, E.(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 Jun. H. J., Ha. S.K.(2015). Social capital and assimilation of migrant workers and foreign wives in South Korea: The case of Wongok community. *Habitat International*, 47: 126-135.
- Kline, R. B.(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4th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Putnam, R. D.(1993a),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 D.(1993b),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 35-42.
- Putnam, R. D.(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Safi, M.(2010). Immigrants' life satisfaction in Europe: between assimilation and discriminatio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6, 159-176.

필자 소개

성 명 황향화

소 속 이촌글로벌빌리지센터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224 한강쇼핑센터 304호 [우편번호]04427

전자우편 wespring12@naver.com

성 명 김옥녀

소 속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주 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우편번호]04310

전자우편 doris@hanmail.net

| Abstract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Living Satisfaction of Migrants in Seoul

Hwang, hyang-hwa · Kim, ock-nyu

(Ichon Global Village Center ·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living satisfaction of foreign migrants. The data were based on the 2019 Seoul Survey of Urban Policy Indicators (Seoul Survey) for foreign residents living in Seoul.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type of stay of migrants, marriage immigrant groups had higher satisfaction with living in Korea when forming bridge-type social capital. Visiting employment groups had high Korean language skills and high living satisfaction when forming bridge-type social capital. Second, the Korean language ability, length of residence, and bridge-type social capital of migrants were found to affect living satisfaction.

[Key words] Migrants, Social Capital, Living Satisfaction, Interculturalism

투고일 2023. 03. 06 / 심사일 2023. 03. 16 / 심사완료일 2023. 03. 20